

LNG, 대지진 여파 수급차질 우려

일본, 원전 대신 LNG 화력발전 확대 불가피 ... 구매 서둘러야

일본의 원전이 지진으로 파괴돼 대체발전용으로 일본의 LNG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내 LNG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일본은 세계 20여개 LNG(액화천연가스) 수입국 중 수입비중이 30-40%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원전 10기가 가동중단되면서 동북부의 250만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심각한 전력난을 겪음에 따라 일본은 LNG 원료를 이용하는 화력발전 가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수요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후쿠시마 발전소의 원전은 평소 24시간 풀가동됐기 때문에 100% LNG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면 일본은 월 87만톤의 LNG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경부는 일본 발전기업들이 4월부터 월 100만-150만톤의 LNG를 추가로 사들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LNG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일본이 LNG 수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 국제시장에서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에는 LNG 외에도 석유와 석탄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LNG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수입을 늘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말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비상수급대책 TF를 구성해 천연가스 수급 및 가격동향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또 재고 부족에 대비해 중단기 LNG 구매 계약을 서둘러 체결하고 상황이 악화되면 천연가스 수요절감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LNG 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다. 국내 LNG 저장용량은 2010년 712만kl로, 2024년에는 1536만kl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3/14>